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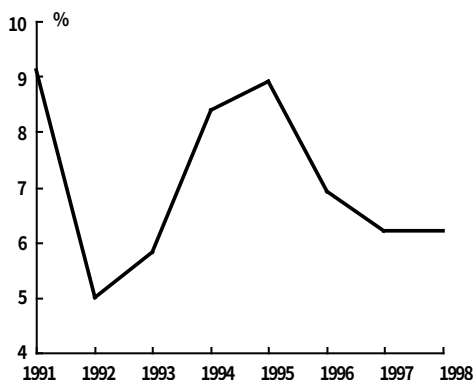
<개선 '97 : 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...>

1998년 경기전망은?

국내 제조기업들의 97년 상반기 경영실적이 96년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98년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경기가 워낙 유동적이고 경기동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, 일단 98년 GDP성장률은 97년과 비슷한 6.3%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.

재정경제원은 최근 한국은행 등 각종 연구기관의 98년 경제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실질성장률이 97년 예산상 실질성장증가율(6.5~7.0%) 보다 0.5%포인트 정도 낮아져 저성장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.



또 국민소득계정의 물가상승률을 보여주는 GNP(국민총생산)디플레이터는 4.2%로 97년 예산상 GNP 디플레이터(4.0~4.5%) 보다 0.5%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. 이에따라 98년 경상성장률은 10.6~10.8%로 97년 예산상 경상성장률(11.3%) 보다 0.6%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.

경제성장률(GNP기준)은 91년 9.1%에서 92년 5.0%, 93년 5.8%로 5%대로 떨어진 뒤 94년 8.4%, 95년에는 8.9%로 연속 8%대의 성장을 보였고, 96년에는 6.9%로 다시 하락했으며, 97년에는 6.0~6.4%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.

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또다른 기준인 재고자산증가율도 88년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

있다.

대우경제연구소가 390개 12월결산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재고자산규모를 집계한 결과 97년 상반기 재고자산규모는 26조8359억원으로 재고자산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6.6%(1조6615억원) 증가하는데 그쳤다. 이는 88년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불경기 속에서 기업들의 재고자산 감축노력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.

95년과 96년 상반기에는 재고자산증가율이 각각 17.7%와 20.0%에 달해 재고자산으로 인해 기업들이 운전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. 상반기의 제조업 재고자산증가율 6.6%는 매출액증가율 11.1%보다도 훨씬 낮은 것이며 재고자산을 매출액으로 나눈 재고자산부담률도 96년 상반기 14.6%에서 14.1%로 줄어들었다.

특히 재고자산부담율 역시 88년 14.2% 이후 최저치이다. 그러나 제조기업 중 대기업의 재고자산부담률은 12.6%였지만 중소기업은 이보다 훨씬 많은 16.9%나 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.

업종별 재고자산규모는 석유정제가 전년동기대비 28.1% 늘어난 1조3083억원에 달했고 의복(25.3%), 기계(19.9%), 소매(19.4%) 등도 재고자산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.

그러나 1차금속업은 재고가 12.1% 줄었고 섬유·고무·플라스틱·건설업·전기기기 등은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.

96년에는 경기침체로 재고자산이 크게 늘었으나, 97년들어 생산을 감축하는 동시에 매출을 늘려 재고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6%대 경제성장률에 재고자산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만을 놓고 보면 경기가 그리 나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.

하지만, 국내 제조기업들의 경쟁력이 좋아졌다고 평가할만한 요소도 전무하다. 최근들어 감원선포이 불고 있지만 임금부담이 크게 낮아졌다고 볼 수 없고 물류비, 금리, 지가 등도 여전히 경쟁력 잠식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.

원화환율의 달러당 890원대 평가절하도 수출경쟁력을 높여주고는 있으나,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물가만 자극한 채 외채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을 뿐이다.

표면상의 안정속에 30대 재벌을 포함 대기업의 부도사태는 왜 벌어지고 있는가?

<화학저널 1997/8/25>